2019학년도 제9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일 시	2020.01.21.(화) 10:30~15:30	장 소	법학전문도서관 영상세미나실
참석자	[13명] 이승렬(의장), 권영찬(부의장), 서인덕, 남효덕, 김문주, 김정숙, 황도삼, 구춘권, 신동훈, 박영봉, 문영조, 김강석, 윤창민		
불참자	[1명] 김상수		
배석자	강석복(교무처장), 권기영(교무팀장), 박외숙(수업학적팀장) 서정숙(대학원장) 손재호(영천병원장), 서종준(영천병원 사무부장), 구본주(영천병원 기획재무팀장) 송시연(의료원 기획조정처장), 이종승(기획부장), 김인배(기획예산팀장), 김정민(기획예산팀 담당) 김병주(기획처장), 배재완(예산팀장)		
기록자	김만석(간사), 이교인		
안 건	<보고> 대학평의원회 평의원 변경 보고 <심의> 영남대학교 학칙 개정(안) <심의> 영남대학교 2021학년도 교육편제 및 정원조정(안) <심의> 영남대학교 대학원 학칙 개정(안) <자문> 2020학년도 부속영천병원회계 자금예산(안) <자문> 2020학년도 부속병원회계 자금예산(안) <자문> 2019학년도 교비회계 5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자문> 2020학년도 교비회계 자금예산(안)		

1 회의요지(내용)

가. 개회

○ 이승렬 의장 : 성원이 되어 개회를 선언하고, 2019학년도 제9차 대학평의원회 회의 안건을 부의하다.

나. 안건 1 : <보고> 대학평의원회 평의원 변경 보고

○ 이승렬 의장 : 영남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자로 변경된 대학평의원회 현황을 참석 평의원에게 보고하다.

다. 안건 2 : <심의> 영남대학교 학칙 개정(안)

○ 이승렬 의장 : 영남대학교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다.

○ 강석복 교무처장 : 영남대학교 학칙 개정(안)의 목적 및 취지, 주요 골자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다.

○ 서인덕 의원 : 전체 융합전공은 몇 개인지와 명칭에 대해 질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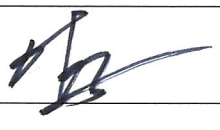
○ 강석복 교무처장 : 현재는 HuStar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워터시스템전공이라는 명칭으로 만들어져 있고, 추후 좋은 전공이 있으면 만들 예정이라고 하다.

간인(서명)	의장		의원		의원	

○ 권영찬 부의장 : 약학대학의 유급제도 및 도전학기제와 관련한 타 대학의 운영 사례에 대해 질의하다.
○ 박외숙 의원 : 인근대학에서도 운영되는 제도라고 하다.
○ 권영찬 부의장 : 도전학기제가 학생의 신청으로 운영되는 학기단위의 제도로 이해되는데, 신청 학생은 다른 수업은 수강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 질의하다.
○ 강석복 교무처장 : 학점 이수(3학점, 6학점, 9학점) 제도로써, 도전학기 학점을 이수하면서 다른 교과목도 수강할 수 있다고 하다.
○ 황도삼 의원 : 2020학년도에 약학대학 유급제도와 융합전공 이수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게 된 이유와 배경에 대해 질의하다.
○ 강석복 교무처장 : 약학대학은 학점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학생이 진급할 경우 수업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제도 도입을 요구해옴에 따라 신설하게 되었다고 하다. 융합전공 이수 제도는 대구시 주관 HuStar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참여 학생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HuStar사업의 전제 조건 때문에 별도 교육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하다.
○ 신동훈 의원 : 약학대학 학생 중 통산 3회의 유급에 해당할 경우 제적처리 한다는 것은 과한 것 같다고 하고, 약학대학에서 요구한 사항인지에 대해 질의하다.
○ 강석복 교무처장 : 약학대학의 요구사항이라고 하다.
○ 서인덕 의원 : 융합전공의 경우 융합전공 설치후 학생을 모집하는지, 단과대학 간에도 설치가 가능한지, 전임교원을 별도로 충원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하다.
○ 강석복 교무처장 : 융합전공 설치후 학생을 모집한다고 하고, 단과대학 간에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교가 아닌 다른 대학간에도 가능하며, 2개 이상의 전공이 연합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관련 학과의 전임교원으로 충분이 운영이 가능하므로 전임교원을 별도로 충원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다.
○ 김정숙 의원 : 도전학기제는 프로젝트 수행, 공연·창작물 제작 등의 다양한 활동의 수행에 대해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로써, 학과에 따라 주관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관련 학과에서 내규나 관련 근거를 마련한 이후 총장이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하고, 제대로 된 규정이 정해지지 않은채 시행되면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하다.
○ 박외숙 수업학적팀장 : 시행과 관련한 세부계획들이 만들어져 있다고 하고, 학생이 도전학기제를 신청할 경우 먼저 해당 학과의 회의를 통해 학생이 신청한 수행 활동의 적절성, 학점부여, 수행활동의 난이도, 수행과정 등을 심사하여 대학 본부에 추천하면 대학 본부에서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고 하다.
○ 이승렬 의장 : 영남대학교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지 확인하고, 의견이 없으므로 영남대학교 학칙 개정(안)은 원안대로 심의·의결한다고 하다.

라. 안건 3 : <심의> 영남대학교 2021학년도 교육편제 및 정원조정(안)

○ 이승렬 의장 : 영남대학교 2021학년도 교육편제 및 정원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다.
○ 강석복 교무처장 : 영남대학교 2021학년도 교육편제 및 정원조정(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10페이지 2번-라항의 정치행정대학 휴먼서비스학과 신설(안)은 해당 학과에서 신설 신청을 철회한다는 공문이 제출되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다.

간인(서명)	의장		의원		의원	

○ 구춘권 의원 : 2021학년도 교육편제 및 정원조정(안)과 관련하여 관련 학과와 협의를 통해 진행했는지에 대해 질의하다.

○ 강석복 교무처장 : 그렇다고 하다.

○ 구춘권 의원 : 휴먼서비스학과 신설과 정치외교학과의 정원을 25명 축소하는 것에 대해 전혀 들은 바 없으며, 교무위원회의 결정 후 일방적인 통보를 받고 학과 회의를 실시했다고 하다.

○ 강석복 교무처장 : 2021학년도 교육편제 및 정원조정(안)과 관련해서 모든 해당 학과장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하고, 이후 교무처에서는 지속적으로 관련 학과장들과 직접 만나서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하다. 또한, 협의과정에서 전년도 입시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폐지한 야간 학과의 정원을 그대로 주관 학과로 적용할 경우 신입생 충원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학과에 제시하였다고 하다.

○ 구춘권 의원 : 우리 학과도 입시경쟁률 등에 대한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하고, 편제 및 정원조정의 필요성도 충분히 이해하기에 얼마든지 대학 본부와 협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 감축에 대해 해당 학과와 충분한 협의없이 진행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하다.

○ 강석복 교무처장 : 해당 학과장들과는 직접 통화를 하였다고 하고, 교무부처장과 교무팀장을 통하여 해당 학과장들과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하다.

○ 권기영 교무팀장 : 해당 학과장과의 협의를 위해 분석한 전년도 신입생 충원율 등의 근거 자료를 토대로 교무부처장과 함께 직접 정치외교학과장, 행정학과장 등과도 만나 협의하였다고 하다.

○ 강석복 교무처장 : 휴먼서비스학과의 신설은 대학 본부의 의견이 아니라 정치행정대학에서 요청을 한 것이라고 하고, 학과 명칭 결정 등은 공문을 통해 관련 학과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다.

○ 김정숙 의원 : 휴먼서비스학과 신설 관련 공문서 및 관련자와의 의견 개진과 관련 자료의 확인을 요청하다.

○ 권기영 교무팀장 : 공문과 회의록이 있다고 하고, 정치행정대학에서 공문 제출시 미술치료학과의 자료도 함께 수합해서 제출하였다고 하다.

○ 이승렬 의장 : 미술치료학과 교수와 통화를 통해 대학 본부가 새마을국제개발학과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하고, 교무위원회에서 결정난 이후에야 미술치료학과 교수들이 정치행정대학에 설치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대학 본부의 설명과 해당 교수들이 하는 이야기가 너무 달라 매우 혼란스럽다고 하다.

○ 권기영 교무팀장 : 정치행정대학의 새마을국제개발학과에서 주관해서 진행하였다고 하고, 미술치료학과를 포함한 관련 교수들과 협의하여 양쪽 학과의 회의록을 모두 첨부하여 최종 결정 사항을 정치행정대학에서 공문으로 신청하였다고 하고, 관련 자료는 지금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다. 공식적인 정원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공문으로 통보(2020.01.02.)했다고 하다.

○ 구춘권 의원 : 정치행정대학에 휴먼서비스 학과를 설치하는 것은 정치행정대학의 정체성 훼손 뿐만아니라 학생들의 정체성 혼돈, 대외 이미지 제고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다.

○ 이승렬 의장 : 미술치료학과에서도 정치행정대학에 설치하는 것은 학과의 학문적 정체성에 문제가 발생 될 수 있다는 이의 제기가 있었다고 하다.

○ 김문주 의원 : 휴먼서비스학과의 신설에 대한 경과를 살펴보면, 2018학년도 교육편제 및 정원조정위원회에서 학과 신설(안) 등은 장기과제로 검토하기로 하였고 교육혁신본부의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했다고 하였는데, 교육혁신본부의 의견을 살펴보면 그 결과가 다소 부정적이었음에도 신설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다.

간인(서명)	의장		의원		의원	

○ 권기영 교무팀장 : 복지 관련 학과 신설과 관련하여 교육혁신본부의 연구결과를 보면, 새마을국제개발학과에서 제출한 복지 관련 학과 신설(안)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결론이라고 하다. 이에 따라 복지 관련 학과 신설에 대한 의견 제출 요구를 정치행정대학에 공문으로 발송하였다고 하다. 정치행정대학에서는 교육혁신본부의 의견을 재검토하고 학문적 추세 등을 감안하여 학과 명칭으로 휴먼서비스학과가 타당하다는 근거 자료와 미술치료학과와 새마을국제개발학과의 교수회의록을 첨부하여 학과 신설 요청을 공문으로 대학 본부에 제출하였다고 하고, 근거가 없다거나 일방적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 공문과 근거를 확인시켜줄 수 있다고 하다.

○ 김문주 의원 : 과거 교육편제 및 정원조정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휴면서비스학과 신설의 근거로서 교육혁신본부의 연구결과에 따랐다고 하지만, 막상 교육혁신본부의 연구결과는 휴먼서비스학과의 전망이 불투명함으로 대학원 전공 과정으로 설치할 것을 추천한다고 되어 있다고 하다. 그리고 학과 신설과 관련해서 관련 공문을 근거로 제시하여 행정라인에서 합의가 이루어 지고 결정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다.

○ 강석복 교무처장 : 대학 본부에서 정책적인 결정을 위해서 매번 전 교수를 대상으로 하는 협의과정을 거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고,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 학과 교수회의록을 첨부하여 단과대학장을 통해 제출된 공식적인 공문의 근거에 따라 정책적 결정을 하는 것은 타당한 행정절차라고 하다.

○ 김문주 의원 : 교육편제 및 정원조정위원회에서 장기과제로 보류한 결정을 추후 관련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무처장이 바뀌었다고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다.

○ 강석복 교무처장 : 교육편제 및 정원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따라 교육혁신본부에 연구의뢰를 한 바, 항공운항계열과 복지 관련 학과 설치는 매우 장래성이 있고, 복지 관련 학과 설치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하다. 교육혁신연구부의 검토결과를 정치행정대학에 통보하면서 교원 신규채용 불가, 공간 및 시설 자체 해결 등의 조건을 명시하였으며 이를 전제로 복지 관련 전공 신설에 대한 학과의 의견을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다고 하다. 따라서, 공문에 따라 절차대로 처리한 것이지 교무처장이 바뀌었다고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은 아니라고 하다.

○ 구춘권 의원 : 신설 학과가 정치행정대학에 설치되는 것에 대해 정치행정대학에서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데, 누가 그렇게 공문으로 제출했는지에 대해 질의하다.

○ 김정숙 의원 : 휴먼서비스학과 설치가 결정된 해당 단과대학 교수들도 몰랐다는 것은 절차나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하다.

○ 강석복 교무처장 : 해당 학과의 교수회의록이 첨부되어 있는 단과대학장 명의의 공식 공문이 제출되었는데도 관련 교수님들께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놀라울 따름이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하다. 다만, 휴먼서비스학과 신설(안)은 해당 학과에서 신설 신청을 철회한다는 공문이 제출되어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휴먼서비스학과의 신설(안)을 제외하고 심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

○ 이승렬 의장 : 영남대학교 2021학년도 교육편제 및 정원조정(안) 심의와 관련하여 휴먼서비스학과 신설(안)을 제외하고 심의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구하다.

○ 전위원 : 동의하다.

간인(서명)	의장		의원		의원	

○ 이승렬 의장 : 자연과학대학 화학생화학과 통합과 관련해서도 해당 학과 교수들이 교수회를 찾아와 학과 통합(안)에 대해서 학과 교수들의 의견을 개진한 바가 전혀 없다고 하다. 대학평의원회에서라도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도록 기회 부여를 요청하였다고 하고, 해당 교수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 심의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다.

○ 강석복 교무처장 : 2018학년도에 1차(안)이 제출되었고, 2019학년도에 수정(안)이 제출됨에 따라 관련 학과 통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당시 자연과학대학장에게 중재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다. 이후 교육편제 및 정원조정위원회 위원장인 부총장이 직접 관련 교수들을 만나 중재를 시도하였음에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하고, 관련 학과 모두가 대학 본부의 교육편제 및 정원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는 의사를 부총장을 통해 전달하였다고 하다.

○ 이승렬 의장 : 당시 관련 학과장들 의견을 들어보면 대학 본부의 교육편제 및 정원조정위원회에 일임한 것은 학과 교수들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후 결정한다는 전제 하에 의견을 제시한 것이었다고 하다. 관련 학과 교수들이 대학평의원회에서의 의견 제시를 위해 대기실에 대기중이라고 하고, 해당 교수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 심의·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다. 의견 청취는 생화학전공, 생명과학과, 화학전공 순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고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다.

○ 전위원 : 동의하다.

○ 이승렬 의장 : 먼저 생화학전공의 입장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다.

○ 홍철암 교수 : 학과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다. 통합이라면 두 학과 구성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우리 대학교 발전을 위해서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날 수 있는가에 대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다. 생명과학과와는 지속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차 수업이 가능하다고 하고, 실험실도 같이 운영하고 있고 전공적으로 시너지 효과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다. CK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화학생화학부로 통합하였으나, 각자의 전공을 유지한 채 운영된 것이라고 하다. 실질적으로는 전공 교류, 학생들간의 유대관계 등의 시너지 효과는 없었다고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생명과학과와의 통합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하다.

○ 이승렬 의장 : 순서에 따라 생명과학과의 의견을 듣겠다고 하다.

○ 유시욱 교수 : 오랜 기간 학과 통합 의견을 모아서 진행했다고 하고,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생화학전공과 생명과학과 교수 전원의 동의를 얻어 통합안을 만들어서 대학 본부에 제출했다고 하다. 고교생들의 수능과목 선택 시 상대적으로 생물 교과목 선호도가 매우 높게 나타난다고 하고, 생화학전공과 통합하게 되면 입학정원이 현재 생명과학과 정원 33명과 생화학전공의 정원 35명을 합하여 68명으로써 괜찮은 수준이라고 하다. 고교에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적극적인 학과 홍보를 할 계획이라고 하고, 취업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다. 타 대학은 화학과와 생화학과 모두에서 화학전공 교수와 생화학 전공 교수 양쪽 모두 있다고 하고, 우리 대학교의 경우 생화학 교수들의 전공분야는 생명과학과 쪽이라고 하다.

○ 이승렬 의장 : 순서에 따라 화학전공의 의견을 듣겠다고 하다.

○ 강미숙 교수 : 화학은 유기, 무기, 물리, 분석, 생화학으로 구성되는데 우리 대학에서는 생화학과가 분리되면서 생화학 교과목 커리큘럼이 없어졌다고 하다. 화학과 졸업생 취업

률이 높은 분야가 제약회사인데 생화학 교과가 없어서 애를 먹고 있다고 하고, 제약회사로부터 우리 대학교는 왜 생화학 교과목이 없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고 있으며, 일부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다. CK사업을 계기로 원할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15학년도 1학기부터 현재의 상태인 화학생화학부로 통합 운영하게 되었다고 하다. 화학생화학부로의 통합 운영은 제약관련 회사로의 취업과 관련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학생들도 매우 좋아하였다고 하다. 학생들이 취업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화학, 생화학을 모두 배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게 전공 교수로서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다. 자연과학대학장의 중재로 두 안이 합의가 안 되니 대학 본부의 교육편제 및 정원조정위원회에 일임하자고 화학전공과 생화학전공 모두가 합의했다고 하다.

○ 이승렬 의장 : 3개 학과 모두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고 하고, 이와 관련한 대학 본부의 설명을 요청하다.

○ 강석복 교무처장 : 화학전공은 화학생화학과로의 통합을 요구하고 있으며, 생화학전공은 1차(2018.11.20.) 의견으로는 생명응용과학대학 생명공학과와 통합을 신청하였다가, 2차(2019.3.22.) 수정안으로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과와의 통합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다. 생화학전공 교원은 모두 생명과학 분야 전공에 해당되기 때문에 교육편제는 화학생화학과로 통합하되, 해당 교원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생명과학과로 소속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하다. 자연과학대학장을 통해 이러한 조정(안)을 제시하고 중재를 요청하였으나, 연구실 및 실험실 등의 공간조정 등의 문제로 인해 조정이 어려웠다고 하고, 부총장이 두 전공 교수를 모두 만나 중재를 하였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하다.

○ 이승렬 의장 : 시너지 효과 등에 대해서 각자의 주장이 다른데 학과를 통합한다고 했을 때 구성원들의 합의를 대학 본부에서는 중요시 했었어야 한다고 하다.

○ 강석복 교무처장 : 관련 학과의 의견을 모두 들었다고 하고, 만약 생화학전공이 생명과학과로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하다. 우리 대학교에서 생화학전공은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고 하고, 그로 인해 화학분야에서는 생화학전공 교수를 충원해야 한다고 하다.

○ 이승렬 의장 : 생화학전공이 생명과학과로 통합되더라도 화학과에 전임교원을 충원하지 않고 강의를 지원하면 된다고 하다.

○ 강석복 교무처장 :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전공 교수들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다.

○ 황도삼 의원 : 2학년 진학시 전공 배정이 된다는 것은 2학년부터 교과목이 아예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렇다면 전공 교수가 더 필요없다는 이야기라고 하다. 만약 필요하다면 1학년때 필요하다는 것인데 1학년때 기초과목인 교양과목만 공통과목으로 운영되는 것이 전부인데 반드시 전임교원이 필요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하다.

○ 이승렬 의장 : 사실은 두 전공이 완전히 별개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다고 하다.

○ 김문주 의원 : CK사업으로 인해 통합되기 전 생화학과는 어떤 형태로 운영되었는지에 대해 질의하다.

○ 강석복 교무처장 : 단독학과로 있었다고 하고, 교수님들도 많이 계셨으며, 건물도 단독으로 활용하고 있었다고 하다.

○ 황도삼 의원 : 학문적으로 학과 분리가 맞다고 하다.

○ 강석복 교무처장 : 생명과학과와의 통합(안)은 생명과학과의 경우 학과는 그대로 있지만 정원을 늘리고, 공간을 늘리는 형태가 된다고 하다.

간인(서명)	의장		의원		의원	

○ 구춘권 의원 : 생화학전공은 생명과학과에 통합하고, 화학분야에서 생화학 전공 교수를 채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하다.

○ 권기영 교무팀장 : 생화학전공이 화학생화학부에서 분리되어 생명과학과로 통합되면, 생화학전공의 입학정원 35명과 생명과학과의 입학정원 33명이 합쳐져 68명으로 늘어난다고 하다. 이렇게 되면 전년도 입학충원율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지원자가 모두 입학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겨우 입학정원을 충족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현 상황에서는 생명과학과는 입학정원을 채우기 어려울 수 있다고 하다.

○ 김문주 의원 : 교원 충원율, 입학 자료 등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통합 기준을 마련한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다.

○ 강석복 교무처장 : 그렇다고 하다. 생화학전공이 생명과학과로 통합될 경우에 화학분야에서는 반드시 생화학 전공 교수를 충원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고, 우리 대학교에 생화학 전공 교수가 없다고 하면 문제되지 않겠지만, 생화학 전공 교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생화학전공 교수를 충원한다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학교사정을 감안한다면 반드시 재고해야 할 사안이라고 하다.

○ 이승렬 의장 : 2020학년도 입시전형 경쟁률에 대해 질의하다.

○ 권기영 교무팀장 : 현재 2020학년도 입시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없다고 하다. 다양한 입학전형이 있어 세부적으로 답변하기에는 곤란하다고 하고, 수시모집의 일반학생전형의 경우 화학생화학부(90명 정원)은 약 2.4대 1, 생명과학과(33명 정원)은 약 1.8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다.

○ 서인덕 의원 : 관련 학과들의 객관적인 의견과 대학 본부의 의견도 들었다고 하고, 이 정도면 충분히 논의되었다고 하다. 관련 학과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고, 대학평의원 회의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대학본부에 결정 맡기고, 학교 결정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하고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다.

○ 이승렬 의장 : 일리있는 말씀이기는 하나 관련 학과들의 의견과 대학 본부의 의견이 너무 대조적이기 때문에 그냥 넘기는 것은 우려가 된다고 하다.

○ 서인덕 의원 : 학과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대학 본부가 분석한 대로 입학정원 및 입학충원율에 근거한 통합(안) 제시도 틀리지 않다고 하다. 만약 대학평의원회에서 부결을 결정하여 처음부터 다시 추진하게 하는 것은 학교 행정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해결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예상되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만 없다면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다.

○ 김문주 의원 : 절차적 타당성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하고, 이렇게 마무리 하면 추후 또 다른 문제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다.

○ 이승렬 의장 : 화학생화학부 통합(안)에 대해서 대학 본부가 합당하게 진행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고 하고,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다.

○ 김문주 의원 : 휴면서비스학과 신설(안)과 화학생화학과 통합(안)에 대해서는 재고 후 다시 논의하는게 좋겠다고 하다.

○ 서인덕 의원 : 대학평의원회에서 재론을 하자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하다.

간인(서명)	의장		의원		의원	

○ 권기영 교무팀장 : 부결되면 2021학년도 정원조정은 불가능하다고 하다. 더욱이 대구경북 지역의 입학 자원이 급감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원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음에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다.

○ 이승렬 의장 : 대학 본부의 학과 통합 과정이 합당하고 타당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하고, 통합에 따르는 시너지 효과에 대해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다.

○ 김문주 의원 : 대학 본부가 입학자원 감소에 대해 늘 엄중하게 말하는 것은 의구심이 든다고 하고, 진행 과정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작스럽게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다.

○ 남효덕 의원 : 대학평의원회에서 부결하여 관련 학과간의 협의를 통해 학과 통합을 재 추진할 경우 1년이 지난다 해도 현재 상황에서 더 나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다. 학과의 의견을 개진하고 관련 절차를 추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대학 본부가 절차를 무시하고 위법하게 의사를 결정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대학 본부의 결정에 대해서도 존중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다.

○ 김만석 기획팀장 : 이 안건은 교육편제 및 정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위원회의 심의, 교무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통해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고, 해당 위원회에 많은 학과의 교수님들이 참여하고 있고, 학교 경영을 위한 처·실장, 단과대학장 등의 기관장이 모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측면으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다.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에 따라 부결될 경우 학과 통합(안)은 원점에서 다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가·부 결정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다.

○ 이승렬 의장 : 교육편제 및 정원조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과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전제조건에 따라 대학 본부에 일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다.

○ 권기영 교무팀장 : 오늘 3개의 관련학과가 발표한 내용과 대학 본부가 절차에 따라 수합한 공문서의 내용이 다르지 않다고 하고, 이러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본부가 관련 학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절차를 진행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다.

○ 구춘권 의원 : 구성원이 반대하는 통합(안)에 대해 왜 관철하려는 지에 대해 질의하다.

○ 권기영 교무팀장 : 생화학전공 입장에서는 생명과학과와의 통합이 필요하고, 반대로 화학전공의 입장에서는 화학생화학과로의 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하다.

○ 구춘권 의원 : 양자가 모두 수긍하고 지속가능한 타협(안)을 찾아 주는 것이 대학 본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하다.

○ 권기영 교무팀장 : 관련 학과에서 2년간 의견을 협의하여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했지만 도출되지 않았기에 대학 본부에 일임하여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것을 교육편제 및 정원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하다.

○ 권영찬 부의장 : 해당 학과들 간에 2년간 의견을 협의하여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했지만 도출되지 않았다면 오늘 부결을 결정하여 합의된 통합(안) 결정에 필요한 시간을 더 준다고 하더라도 합의점 도출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하다.

○ 황도삼 의원 : 화학전공과 생화학전공이 통합(안)대로 통합한다고 해도 입학정원이 90명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입학충원율에 경쟁률이 떨어질 것이라고 하다.

간인(서명)	의장		의원		의원	

○ 권기영 교무팀장 : 화학생화학부로 통합되어 있는 현재 입학정원이 90명이라고 하고, 2022년에 오히려 10명을 감축할 계획이기 때문에 화학생화학과 통합으로 인하여 입학충원율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다.

○ 신동훈 의원 : 화학전공과 생화학전공이 통합하는 것 보다는 현 상태로 있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고 하다.

○ 권기영 교무팀장 :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감수하고도 이 통합(안)으로 결정하게 된 것은 현 상태로 화학전공과 생화학전공이 별도로 운영되는 것은 결국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두 전공 모두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하다.

○ 이승렬 의장 : 겸직이라든지 다른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중재 방안이 있는 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처리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고 하다.

○ 강석복 교무처장 : 생화학전공의 생명과학과로의 통합 의견을 들어본 바, 그런 이유라면 편제를 조정하는 것 보다는 교수의 소속을 변경하는 것이 맞다고 하고, 편제는 원래 통합(안) 대로 화학생화학과로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다.

○ 황도삼 의원 : 생화학전공 교수님의 설명에서도 개인적인 부분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학문적,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 전반적인 고려가 있었다고 하다.

○ 권기영 교무팀장 : 오늘 심의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하다. 오늘 안건은 교육편제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하고, 생화학전공과 생명과학과의 통합(안)은 편제는 생명과학과로 그대로 있지만, 생화학전공은 편제에서 없어지는 것이라고 하다.

○ 이승렬 의장 : 편제조정이라는 것도 경쟁력 강화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해야된다고 하다. 생화학전공과 생명과학과의 의견은 통합될 경우 두 학과 모두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의견이라고 하다.

○ 권기영 교무팀장 : 내용적인 측면과 편제 차원에서의 개편의 차이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하고, 화학생화학과로 통합될 경우 생화학전공 교수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생명과학과로 소속을 변경하면 되는 일이라고 하다.

○ 황도삼 의원 : 만약에 그렇다면 나는 그 안에 동의한다고 하다.

○ 이승렬 의장 : 그렇게 되면 생명과학과는 교수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하고, 정원도 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질의하다.

○ 강석복 교무처장 : 교원 소속변경에 따른 정원 조정은 검토할 수 있다고 하다.

○ 김정숙 의원 : 유사 사례가 있었던 학과에 소속된 교수 입장으로 본다면 이런 경우에는 정리가 불가능하다고 하고, 대의적 차원에서 교수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다.

○ 남효덕 의원 : 대학평의원회에서 이렇게 긴 고민을 해왔던 적은 없었다고 하고, 이 안건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부수적인 것은 대학 본부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다.

○ 황도삼 의원 : 교원의 소속변경이 이루어 질 경우 연구실, 시설, 관련 예산 등의 조정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다.

○ 김문주 의원 : 각 교수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여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다.

간인(서명)	의장		의원		의원	

○ 이승렬 의장 : 영남대학교 2021학년도 교육편제 및 정원조정(안)은 휴먼서비스학과의 신설(안)을 제외하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다. 다만, 화학생화학과 통합(안)에 대해서는 대학본부가 관련 구성원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정원조정, 교원의 소속변경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다.

마. 안건 4 : <심의> 영남대학교 대학원 학칙 개정(안)

○ 이승렬 의장 : 영남대학교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다.
○ 서정숙 대학원장 : 영남대학교 대학원 학칙 개정(안)의 목적 및 취지, 주요 골자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다.
○ 남효덕 의원 : 잠정적으로 시행하고 있거나 구상했던 것을 문서화 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다.
○ 서정숙 대학원장 : 신설된 성적평가 근거서류 보관 등의 조항 등 교수 보호를 위해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하다.
○ 황도삼 의원 : 기술혁신·기업가정신학과는 일반대학원에 개설되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다.
○ 서정숙 대학원장 : 일반대학원 협동과정에 개설되는 학과라고 하다. 다만, 기술혁신·기업가정신학이라는 긴 이름의 석사, 박사 학위명으로 학위를 수여하고 있었으나, 주관 학과인 경영학과에서 주관학과의 학위(경영학석사, 경영학박사)와 자체 학위(기술혁신·기업가정신학석사, 기술혁신·기업가정신학박사)중 1개의 학위를 선택하여 수여할 수 있도록 추가해줄 것을 요구해온 바, 학생과 지도교수가 논의하여 둘중 하나를 택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취지라고 하다.
○ 이승렬 의장 : 영남대학교 대학원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지 확인하고, 의견이 없으므로 영남대학교 학칙 개정(안)은 원안대로 심의·의결한다고 하다.

바. 안건 5 : <자문> 2020학년도 부속영천병원회계 자금예산(안)

○ 이승렬 의장 : 2020학년도 부속영천병원회계 자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다.
○ 손재호 영천병원장 : 2020학년도 부속영천병원회계 자금예산(안) 편성의 기본 방향과 주요사항, 세부내역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다.
○ 신동훈 의원 : 환자수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고, 계속 동일한 상황인지에 대해 질의하다.
○ 손재호 영천병원장 : 예산 편성시 환자수가 줄었다고 하고, 겨울되면 회복되는 추세가 이어진다고 하다. 영천시의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년대비 환자수를 유지하면서 예산을 책정한다고 하다.
○ 신동훈 의원 : 하양 쪽에서는 환자가 오는지에 대해 질의하다.
○ 손재호 영천병원장 : 하양에서는 대구로도 나가고 영천쪽으로도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다.
○ 신동훈 의원 : 좀더 노력을 하여 하양쪽에서 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하다.
○ 손재호 영천병원장 : 알겠다고 하다.
○ 신동훈 의원 : 간호사 등의 의료진 수급이 원할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다.
○ 손재호 영천병원장 : 작년부터 간호사, 임상의사 등의 의료진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다.
○ 김정숙 의원 : 교원 급여를 직원 급여로 전환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다.
○ 손재호 영천병원장 : 임상교원이 당초 전문계약직으로 운영되었으나, 병원 소속감 등을 높이기 위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이라고 하고, 이에 따라 인건비가 교원급여에서 직원급여로 항목이 전환되는 것 이라고 하다.

간인(서명)	의장		의원		의원	

○ 서종준 부속영천병원 사무부장 : 계약직 임상교원은 교원으로 분류하기에는 곤란하다는 법인의 지적에 따라 직원으로 분류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 이라고 하다.
○ 김정숙 의원 : 2019년 예산과 거의 동일한데, 이런 현상유지 수준은 퇴보하는 것 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변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다.
○ 손재호 영천병원장 : 앞에서 언급한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나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하다.
○ 신동훈 의원 : 의사 선생님들은 현재 급여에 만족하는지에 대해 질의하다.
○ 손재호 영천병원장 : 지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만족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하다.
○ 신동훈 의원 : 계약직 임상교원의 경우에는 제약이 있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할 재량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다.
○ 손재호 영천병원장 :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하다.
○ 남효덕 의원 : 인건비 목을 변경하면 인상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다.
○ 손재호 영천병원장 : 예산 항목 변경에 따른 인건비 상승효과는 없다고 하다.
○ 황도삼 의원 : 법인의 지적에 따라 직원으로 분류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하였는데, 임상교원의 경우 지속적으로 계약으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다.
○ 손재호 영천병원장 : 원래는 1년단위로 계약하여 운영하였다고 하고, 정규직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다.
○ 김문주 의원 : 복리후생비에 책정되어 있는 직원 장기근속 수당에 1년 단위의 계약으로 운영되는 임상교원도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의하다.
○ 서종준 부속영천병원 사무부장 : 매년 계약을 갱신한다 하더라도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근속 수당 혜택을 받는다고 하다.
○ 김문주 의원 : 부속영천병원의 미래를 위해 별도로 적립하는 적립금이 있는지와 발생한 이익중 미사용액을 미사용차기이월자금으로 누적하는지에 대해 질의하다.
○ 손재호 영천병원장 : 별도로 적립하는 적립금은 없다고 하고, 발생 이익 미사용액을 미사용차기이월자금으로 누적한다고 하다.
○ 이승렬 의장 : 2020학년도 부속영천병원회계 자금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지 확인하고, 의견이 없으므로 2020학년도 부속영천병원회계 자금예산(안)에 대한 자문을 마친다고 하다.

사. 안건 6 : <자문> 2020학년도 부속병원회계 자금예산(안)
○ 이승렬 의장 : 2020학년도 부속병원회계 자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다.
○ 송시연 의료원 기획조정처장 : 2020학년도 부속병원회계 자금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과 주요사항, 세부내역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다.
○ 남효덕 의원 : 장애인고용부담금이라는 것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데 고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 납부해야하는 예산인지에 대해 질의하다.
○ 송시연 의료원 기획조정처장 : 그렇다고 하다.
○ 남효덕 의원 : 실제 장애인고용율 및 집행액은 어느정도 되는지에 대해 질의하다.
○ 송시연 의료원 기획조정처장 : 직접고용 인원이 22명, 간접 고용인원이 36명이라고 하다.

간인(서명)	의장		의원		의원	

○ 서인덕 의원 : 지출예산에 교원급여가 109억여원이 맞는지에 대해 질의하다.
○ 송시연 의료원 기획조정처장 : 맞다고 하고, 학교전출금 예산(안)에 포함된 교원 급여의 일부가 제외된 급여 예산액이라고 하다. 과거 학교와 의료원은 진료수당을 제외한 교원 인건비를 각각 인건비 지출예산으로 책정하였으나, 현재는 대학에서 지출하는 인건비는 학교전출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하다.
○ 서인덕 의원 : 인건비가 1,500억여원인데, 지출예산의 세부내역과 맞지 않다고 하다.
○ 송시연 의료원 기획조정처장 : 인건비가 1,555억여원으로 지출예산 세부내역과 동일하며 대학에서 지급하는 교원인건비는 일부가 학교전출금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하다.
○ 김정숙 의원 : 미사용전기이월자금하고 미사용차기이월자금의 차이에 대해 질의하다.
○ 김인배 의료원 기획예산팀장 : 미사용전기이월자금은 10월 결산을 기준으로 이월자금이 약 809억원 정도이며, 11월부터 2월까지 수익 증가 120억여원을 더하고, 11월부터 2월까지의 지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약 769억여원이라 하다.
○ 서인덕 의원 : 외래 수익이 작년보다 30여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데, 보험수가의 인상에 따른 것인지 외래 환자 증가 때문인지에 대해 질의하다.
○ 송시연 의료원 기획조정처장 : 보험수가 인상 및 외래 환자 증가로 인하여 외래수익이 약 3% 정도 증가되었다고 하다.
○ 서인덕 의원 : 계명대학교 성서병원의 개원에 따라 진료수입이 증가된 것 인지 아니면 통상적인 연 증가율에 따른 증가 인지에 대해 질의하다.
○ 송시연 의료원 기획조정처장 : 계명대학교 성서병원 개원 이후 우리 병원에 미친 영향은 크게 없었다고 하고 통상적인 증가율이라고 하다.
○ 신동훈 의원 : 병실 가동율이 다소 떨어지고 있는데 괜찮은지에 대해 질의하다.
○ 송시연 의료원 기획조정처장 : 원래 계획했던 것 보다 떨어졌던 것은 사실이지만, 크게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다.
○ 김정숙 의원 : 장기적으로 제2병원 건립을 위한 적립금이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다.
○ 송시연 의료원 기획조정처장 : 올해부터 건축적립금 100억여원을 적립하기 시작했다고 하다.
○ 김문주 의원 : 기타 적립금에 들어가 있는 항목이 고가 의료장비 적립금과 건축적립금 2개의 비목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다.
○ 송시연 의료원 기획조정처장 : 그렇다고 하다.
○ 권영찬 부의장 : 새병원 건립을 위한 컨설팅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가 제외된 이유에 대해 질의하다.
○ 송시연 의료원 기획조정처장 : 새병원 컨설팅은 작년에 완료되었기 때문이라 하다.
○ 김문주 의원 : 작년 하반기에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센터 운영에 따라 병원 전체수익이 확대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다.
○ 송시연 의료원 기획조정처장 : 그 부분에 대한 예측은 어렵다고 하다.
○ 김문주 의원 : 그전 설치 운영되었던 호흡기전문질환센터로 인해 병원 전체 수입이 늘었는지에 대해 질의하다.
○ 송시연 의료원 기획조정처장 : 일부 증가는 했지만 급격하게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는 아니었다고 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 역시 동일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하다.
○ 이승렬 의장 : 2020학년도 부속병원회계 자금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지 확인하고, 의견이 없으므로 2020학년도 부속병원회계 자금예산(안)에 대한 자문을 마친다고 하다.

간인(서명)	의장		의원		의원	

아. 안건 7 : <자문> 2019학년도 교비회계 5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 이승렬 의장 : 2019학년도 교비회계 5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다.

○ 김병주 기획처장 : 2019학년도 교비회계 5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의 편성 기본 방향과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배재완 예산팀장에게 부연 설명을 요청하다.

○ 배재완 예산팀장 : 2019학년도 교비회계 5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의 편성 기본 방향과 주요사항에 대하여 부연 설명하다.

○ 김문주 의원 : 건축기금 감소분(약대 신축 등) 78억원이 올해 예산으로 집행되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다.

○ 배재완 예산팀장 : 2019학년도에 집행할 예정이라고 하다.

○ 김문주 의원 : 약대 신축이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으므로 내년도 예산 집행계획에 대해 질의하다.

○ 배재완 예산팀장 : 2020학년도에 약 60억 정도 예산이 배정되어야 한다고 하다. 약대 건물 신축에만 총 154억원이 소요되고, 내부 기자재 설치 등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하다.

○ 이승렬 의장 : 2019학년도 교비회계 5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지 확인하고, 의견이 없으므로 2019학년도 교비회계 5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에 대한 자문을 마친다고 하다.

자. 안건 8 : <자문> 2020학년도 교비회계 자금예산(안)

○ 이승렬 의장 : 2020학년도 교비회계 자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다.

○ 김병주 기획처장 : 2020학년도 교비회계 자금예산(안)의 편성 기본 방향과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배재완 예산팀장에게 부연 설명을 요청하다.

○ 배재완 예산팀장 : 2020학년도 교비회계 자금예산(안)의 편성 기본 방향과 주요사항에 대하여 부연 설명하다.

○ 김병주 기획처장 : 학생수는 줄고 등록금도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며 국고지원 증가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학교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다.

○ 권영찬 부의장 : 등록금 수입예산은 2020학년도 신입생 충원율이 100% 이루어졌을 경우를 가정하여 책정한 예산인지에 대해 질의하다.

○ 김병주 기획처장 : 올해 경쟁률로 봐서는 100% 충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책정한 예산이라고 하다.

○ 구춘권 의원 : 1년에 150억원 정도의 건축기금을 인출해야 학교가 유지되는지에 대해 질의하다.

○ 김병주 기획처장 : 약대 신축과 과학도서관 리노베이션이 있기 때문에 2020학년도에는 그렇다고 하고, 2020학년도에 해당 공사가 모두 완료되고, 더 이상 신축되는 건물이 없다면 향후 대교모 기금 인출은 없을 것이라고 하다.

○ 구춘권 의원 :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것은 향후 5~6년간 매년 150억원씩 인출할 경우 기금이 고갈될 것인데, 그 이후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다.

○ 김병주 기획처장 :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약학대 신축과 과학도서관 리노베이션이 끝나면, 당장 시급한 건축물 신축 등의 계획이 없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하다.

○ 남효덕 의원 : 재원이 걱정되더라도 건물은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고 하다.

간인(서명)	의장		의원		의원	

○ 김병주 기획처장 : 학생수가 계속해서 줄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고, 약학대 신축과 과학도서관 리노베이션이 끝나고 나면 낡은 건물들을 보강하는 정도로 관리가 될 것이라고 하다. 그동안 국고사업비를 활용하여 건물 내부환경개선 위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였다고 하고, 외관이 낡은 일부 단과대학 등에 대해서는 매년 일정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외부 환경을 개선할 계획으로 협의중에 있다고 하다.

○ 김문주 의원 : 인건비 예산(안) 중 2학기에 전년대비 정년계열 교원이 17명 감소와 외국인 교원 20명 충원을 예상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질의하다.

○ 김병주 기획처장 : 과거에 우리 대학교는 교원충원을 전임교원 위주로 하였기 때문에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일 수가 없었다고 하고, 우리 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이 약 68% 정도인데 이는 전국의 기본역량평가 대상 150개 대학중에서 135위 라고 하다. 우리 대학이 기본역량 진단에서 가장 많은 감점 요인이 전임교원 확보율로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현시점에서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퇴직 인원 비율과 동일하게 충원한다는 것은 교원 인건비를 낮추지 않는 이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산투입이 낮으면서도 전임교원 확보율에는 포함되는 외국인 교원의 충원율을 높일 계획이라고 하다.

○ 김문주 의원 : 3주기 대학기본역량평가에서 전임교원 확보율이 매우 중요한 지표라고 알고 있다고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지표관리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직전의 다른 심의안건에서 교무처장께서 교원확보율이 87%라고 하였다고 하다.

○ 김병주 기획처장 : 그것은 겸·초빙교원을 포함한 교원확보율이 87%라고 하다. 교원확보율은 편제 및 정원조정을 위해 3년간 유지해야 할 지표이며, 전임교원 확보율은 각종 평가에서 활용되는 지표라고 하다. 3주기 대학기본역량 평가를 위해서는 전임교원 확보율을 현재보다 상향하여 유지되어야 한다고 하고, 교육부가 정해놓은 만점기준이 74%(전국대학 평균) 수준이라고 하다.

○ 김문주 의원 : 상당히 오랬동안 계획되고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면제거 비용이 책정되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다.

○ 김병주 기획처장 : 석면 제거 비용이 만만찮기 때문에 시설처에서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다.

○ 김문주 의원 : 전임총장 재임시절에 교육부에서 대두되었던 문제로써 대학평의원회에서도 제기되었던 사안으로 당시 향후 10년간 90여억원(매년 1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석면을 제거할 계획이라고 하였는데, 현재 배정된 10억원의 예산이 석면 제거에 소요되는 예산인지에 대해 질의하다.

○ 배재완 예산팀장 : 석면 제거 비용이라고 별도로 배정한 예산은 없다고 하고, 불가피한 환경 개선시 천정 공사를 할 경우 석면 제거 공사를 같이하는 것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하다.

○ 김문주 의원 : 앞에서 처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강의실 환경 개선 공사는 상당부분 국고지원 사업비를 활용하였다고 하였는데, 대부분의 사업이 종료되었는데 어떤 예산으로 공사를 하실 계획인지에 대해 질의하다.

○ 김병주 기획처장 :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교육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고, 국비지원 예산의 일정비율은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고 하다

○ 김문주 의원 : 석면제거와 관련한 국고 지원 시기가 언제였는지에 대해 질의하다.

○ 김만석 기획팀장 : 2012년도에 석면 안전관리법이 시행 되었다고 하고, 2013년도에 석면 제거 사업 시행을 위해 석면 보유현황을 조사하여 보고한 바 있다고 하다. 당시 전체 건축물의 23.3%에 석면이 남아 있었다고 하고, 일괄 석면제거 공사를 실시할 경우 약 100억여원의

간인(서명)	의장		의원		의원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하다.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하면 현재로서는 일괄 석면제거 공사 보다 더 우선순위의 공사가 있기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다. 단과대학 등에서 건물 개보수 상황이 발생하거나,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활용하여 교육환경 개선 공사가 시행될 경우 석면을 제거할 계획이나, 석면 제거만을 위한 별도의 국고지원 예산 투입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설처와 기획처가 면밀한 검토를 진행중에 있다고 하다.

○ 이승렬 의장 : 어쨌든 석면이라는 것이 낡게 되면 미세하게 떨어진다고 하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교체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다.

○ 이승렬 의장 : 2020학년도 교비회계 자금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지 확인하고, 의견이 없으므로 2020학년도 교비회계 자금예산(안)에 대한 자문을 마친다고 하다.

바. 폐회

○ 이승렬 의장 : 호선에 의하여 간인(서명) 의원으로 의장과, 권영찬 부의장, 김정숙 의원을 선출하다. 제9차 회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고, 각 의원에게 회의 종료 전 다른 의견이 있는지 묻다.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2019학년도 제9차 대학평의원회의 폐회를 선언하다.

2 심의결정사항

가. 안건 1 : <보고> 대학평의원회 평의원 변경 보고

- 2020년 1월 1일자 대학평의원회 평의원 변경 확인 완료

나. 안건 2 : <심의> 영남대학교 학칙 개정(안)

- 영남대학교 학칙 개정(안)은 원안대로 심의·의결하다.

다. 안건 3 : <심의> 영남대학교 2021학년도 교육편제 및 정원조정(안)

- 영남대학교 2021학년도 교육편제 및 정원조정(안)은 휴먼서비스학과의 신설(안)을 제외하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다. 다만, 화학생화학과 통합(안)에 대해서는 대학본부가 관련 구성원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정원조정, 교원의 소속변경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다.

라. 안건 4 : <심의> 영남대학교 대학원 학칙 개정(안)

- 영남대학교 대학원 학칙 개정(안)은 원안대로 심의·의결하다.

마. 안건 5 : <자문> 2020학년도 부속영천병원회계 자금예산(안)

- 별도 자문 의견 없음

바. 안건 6 : <자문> 2020학년도 부속병원회계 자금예산(안)

- 별도 자문 의견 없음

사. 안건 7 : <자문> 2019학년도 교비회계 5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 별도 자문 의견 없음

아. 안건 8 : <자문> 2020학년도 교비회계 자금예산(안)

- 별도 자문 의견 없음

간인(서명)	의장		의원		의원	

2020.01.21.

평의원 확인	이승렬	권영찬	남효덕	서인덕
	의 장	부의장		
	구춘권	김문주	김정숙	신동훈
	황도삼	김상수	박영봉	문영조
		불참		
	김강석	윤창민		